

초대박 임실N치즈축제, 성공 비결은?

순창 변전소 신설 확정 2020년까지 200억 투자 고품질 전력 공급 기대

순창군에 154kV 순창변전소 신설 계획이 최종 확정돼 관내 농공단지 기업체에 순간정전 사전 예방과 고품질 전력이 공급될 수 있게 됐다.

군은 최근 순창변전소 신설 계획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최종 확정되어 통보됐다고 10일 밝혔다. 순창변전소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총 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순창군은 그동안 도내에서 유일하게 변전소가 없어 인근 곡성, 담양 변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을 사용함에 따라 농공단지 내 공장들이 순간 정전 등 전력 품질이 낮아 기업체의 제품생산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많은 불편을 호소해 왔었다. 군은 기업체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이번 순창변전소 신설을 이끌어 냈다.

이에 순창군은 그동안 수년간 변전소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변전소 시설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번번이 실패했다. 군은 올해 초부터 한전 순창지사는 물론 한전 전북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수차례 방문하여 변전소 신설 필요성을 근거자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군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전력수요에 대비해 변전소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설득했다.

한전측은 순창군의 기본 자료를 토대로 자체 검증을 통해 최종 순창변전소 설치를 군에 확정 통보했다.

순창변전소 설치가 완료되면 순창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발효산업투자선도지구와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수체협센터는 물론 향후 조성될 특화농공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수요(70MW)에 사전 대처가 가능해 고품질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황숙주 군수는 "수년간 순창군의 숙원이었던 변전소를 드디어 건설하게 된 것에 대하여 한전측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변전소 입지후보지 매입이 슬기롭게 이루어져 하루라도 빨리 변전소가 설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역대 최대 45만여명 기록

추석연휴 겨냥한 축제기간 전국서 관광객 대거 몰려 천만송이 국화꽃 등 볼거리 휴일반납 공무원도 숨은 주역

올해로 세 번째로 열린 2017 임실N치즈축제가 역대 최대인 45만여명의 관광객을 유치, 초대박 기록을 세운 가운데 그 성공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 10월 10일자 1면>

가장 첫 번째로 꼽힌 점은 축제기간을 긴 추석연휴에 맞췄다는 점이다. 4일 추석명절 직후인 6일부터 9일까지를 축제기간으로 정함으로써, 남은 연휴 즐길거리를 찾던 전국 관광객들이 대거 몰렸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실제 추석명절을 전후해 축제개막 이전부터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찾은 관광객이 10만여명에 달했고, 그 열기에 더해 축제가 시작한 6일부터는 35만여명의 방문객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뤘다.

담초 임실군은 최장 열흘간의 명절 연휴기간에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내부 이견이 분분했다. 휴일이 길어진 만큼 해외여행 등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관광객



임실N치즈축제가 역대 최대인 45만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사진은 심민 임실군수가 임실N치즈축제에서 맥매치기를 하고 있다.

유치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컸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결과는 역대 최대 관광객 유치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초대박 축제'가 됐다.

여기에는 심민 군수의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이 큰 몫을 차지했다. 심 군수는 "오�히려 긴 명절기간에 여행지를 찾지 못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더 많이 축제장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승부를 떠났다.

심 군수는 작년 축제가 끝난 직후부

터 올해 축제를 준비토록 하며, 축제 관련 세심한 부분까지 일일이 챙기며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를 진두지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실치즈테마파크 일대를 수놓은 천만송이 국화꽃도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 일등주역이다. 지난 해 축제때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천만송이 국화꽃은 올해도 역시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으며, 광활한 테마파크 일원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장식하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임실치즈사 50년을 맞아 지난 해 보다 더 알차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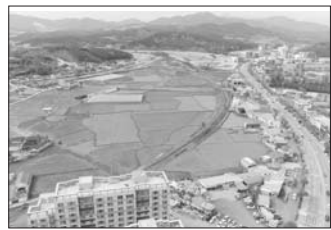
연일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며, 입소문을 타고 축제기간 내내 인기를 끌었다.

이번 축제는 '웃어봐요! 치즈, 행복쫄~'이라는 주제로 치즈라는 소재를 최대한 살려낸 10개 테마의 80여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 중 기네스북에 도전할 만한 8M짜리 대형 왕피자 만들기와 피자요정이 2000여개의 치즈를 떨어뜨리는 획기적인 장관 등을 연출, 관광객들에게 더없는 즐거움을 선사했다는 평이다. 올해 처음 시도한 야간 '야마로파티'는 가족 관광객은 물론 젊은 연인들에게 신명나는 밤을 선사하기도 했다.

또한 추석연휴를 반납하고, 축제기간 내내 방문객 편의와 주차안내, 교통지도 등 전사적으로 뛰어난 임실군 공무원들의 열정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공의 주역들이다.

심 군수는 10일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이제 임실N치즈축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과 더불어 전국 각지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도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올해 축제의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축제를 준비해 나가고, 향후 5년내에 100만명이 찾는 축제를 함께 만들어 가지"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기자



남원 구암지구 도시개발 추진 사업제안서 행정절차 이행 중

남원시 향교동과 도동동 일대에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제안서를 남원시에 접수함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본 사업 제안과 관련 지난달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남원시 향교동, 도동동 일원 17만3000㎡ 규모로 건설되며 여기에는 공공주택, 공공청사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추진 중으로 주거용지(공공주택용지) 6만3000㎡와 단독주택 1만6000㎡, 준주거시설 1만㎡, 공공청사 1만9000㎡이 함께 들어선다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이라며 "올 연말 개발계획 인복도 승인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치매 국가책임제 가속... '치매안심센터' 건립 순항

남원시 9억9500만원 확보

내년 6월 정식개소 예정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시는 차질 없는 센터 설치·운영을 위하여 금년도 제2회 추경에 국도비 7억4000만원 등 총사업비 9억9500만원을 확보, 기존 보건소 부지 내 연면적 462㎡규모로 시설을 확충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8년 6월까지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치매전담 간호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완료해 정식 개소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건립된 센터는 사무실, 교육상담실, 검진실, 프로그램실, 단기원터와 치매 가족카페를 설치해 치매



어르신들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전담 코디네이터부터 초기상담, 검진 등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치매 걱정 없고 노년이 행복한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치매 예방부터 조기검진, 사례관리, 치매치료비지원까지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철저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12억2000만원 확보

정신건강증진센터도 건립

임실군이 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치료센터 건립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건강복지정책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10일 군에 따르면 주민들의 치매 검사와 정신건강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임실군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12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부터 국비 등을 포함해 16억8000만원을 투입, 3층 규모의 임실치매안심센터 및 정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일년여에 걸쳐 새로 짓게 된다.

임실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증진



센터는 임실군 보건지소 옆에 300평 부지에 건립되며, 치매검사와 정신건강 상담 등 관련 질환을 집중 케어하게 된다.

특히 현재 치료 중인 치매환자 576명과 치매가 의심되는 180여명 등 760여명의 주민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는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병환의 경, 중에 따라 맞춤형 복지정책이 크게 확대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순창군은 10일 순창군청 회의실에서 산하공직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공직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행정법제국에 근무하는 이규태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산업입지 규제개혁 및 기업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낸 이규태 사무관은 "업무 하면서 기업성장을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꼭 개선해야 한다"라면서 "기업과 주민입장에서 규제를 바라보며 업무를 처리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일자리 창출방법으로, 앞으로 군민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공직자의 규제개혁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권주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과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